

새 얼굴 4인방, 대전스포츠토토 이끈다

(최소미·여민지·전은하·이민선)

WK리그 정상 노리는 그녀들

대교 출신 최소미, 중앙수비수 안성맞춤 국가대표 출신 전은하·여민지 팀의 미래 이적 후 5골 이민선 “다음시즌 우승 도전”

‘새 얼굴 4총사가 대전스포츠토토의 상승세를 이끈다!’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sportstoto.co.kr)가 운영하는 대전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의 새 얼굴 4총사가 팀의 미래를 이끌 주역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중위권을 벗어나 WK리그 정상을 노리는 스포츠토도 여자축구단의 상승세를 책임질 이들 4명을 만나봤다.

●대교 출신 최소미·이민선, 공수의 중심으로 우뚝!

현재 대전스포츠토토의 공격과 수비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주역은 WK리그의 명문 이천대교 출신 최소미(23)와 이민선(24)이다. 대전스포츠토토 손종석 감독은 수비수 최소미에 대해 “팀을 위해 희생은 마다하지 않는 헌신적 선수”라고 평가했다. 최소미는 공격불경험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신중하고 차분한 성격 또한 팀의 최후방을 지켜야 할 중앙 수비수로서 안성맞춤이다. 현재 부상으로 재활 중이지만, 코칭스태프의 주문에 따라 몸싸움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수비력을 가꾸는데 몰두하고 있다. 최소미는 “여자축구선수권대회와 전국체전 등 압박한 일정으로 인해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점이 다소 아쉽다”면서도 “지원과 관심이 계속된다면,



WK리그 정상을 노리는 대전스포츠토토의 새 얼굴 4총사는 포지션과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 팀에 없어서는 안 될 보물들이다. 왼쪽부터 최소미, 여민지, 전은하, 이민선. 사진제공 | 케이토토

더욱 재미있고 좋은 경기로 보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적하자마자 5골을 터트리며 팀 내 득점 1위에 올라있는 이민선은 믿음직스러운 공격자이다. 그녀는 “자유로운 팀 분위기와 부족함 없는 지원이 만족스럽다”며 미소를 지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정식으로 축구를 시작한 이민선은 “올 시즌 전반기에는 수비수와 공격수가 모두 함께 뛰는 축구가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후반기 들어 다소 힘이 떨어진 게 아쉽다”며 “WK리그 각 팀의 전력이 평준화되고 여자축구의 수준이 높아진 만큼, 올 시즌 전반기에 보여준 전력을 이어간다면 다음 시즌에는 우승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한국여자축구의 미래 전은하·여민지

각급 국가대표를 거치며 대전스포츠토토에 등지를 튼 1993년생 동갑내기 전은하와 여민지는 팀은 물론 한국여자축구의 미래를 책

입질 재원이다. 2012년 20세 이하(U-20) 여자월드컵에서 일약 스타로 떠오른 전은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거쳐 지난해 12월 대전스포츠토토로 이적했다. 힘들 때마다 축구 감독 출신인 아버지의 격려에 큰 위로를 받았다는 그녀는 축구를 시작하면서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얻었다. 어리지만 툭툭 뛰는 개성과 밝은 성격으로 팀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보다 미래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전은하는 “허물없는 팀 분위기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새 팀에 적응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레이에 집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WK리그 2년차를 맞은 여민지는 부상을 치료하며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손종석 감독에 따르면, 여민지는 대전스포츠토토가 지향하는 빠른 역습과 결정력을 겸비한 기대주다. 입단 초기부터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손 감독은 여민지의 완벽한 몸 상태 회복

을 위해 출전시간을 조절해주는 등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손 감독은 “대표급의 실력을 지닌 여민지의 경우 철저한 관리를 통해 정상적인 컨디션을 되찾는다면 훌륭한 경기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어린 선수인 만큼 미래를 위한 동기부여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민지 역시 세계무대에서 느꼈던 체력적 열세를 극복해 한 단계 높이 도약하기 위해 재활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여자축구 선진국에 비해 유소년 시스템과 인프라 등에서 다소 격차를 느끼고 있다는 그녀는 한국여자축구가 발전하기 위해선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전스포츠토토 관계자도 “꾸준히 성적을 올려온 팀이 새로 영입한 선수들의 맹활약으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훌륭한 경기력으로 여자축구 활성화에 앞장서는 구단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주희정이 가세한 삼성은 지난 시즌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은 존재감이 큰 베테랑 주희정의 체력관리를 통해 상대팀의 집중 견제를 풀어야 하는 새로운 숙제에 직면했다. 사진제공 | KBL

삼성, 주희정에 달렸다

속공 전개 국내 최고...SK전 역전승 견인 이상민 감독 “집전때 활을 위해 체력관리”

“주희정(38·삼성)이 있으니까 팀이 달라지더라고.”

‘2015~2016 KCC 프로농구’ 개막을 앞두고 남자프로농구 각 구단이 연습경기에 나선 6월 말, 새 시즌 준비에 한창이던 모비스 유재학 감독은 삼성과의 연습경기를 마친 뒤 “주희정이 뛰니까 팀이 달라지더라. 경험이 필요했던 팀인데 (주희정이 들어갔으니) 삼성이 좋아지겠다”고 밝혔다.

유 감독의 예상대로 삼성은 달라졌다. 올 시즌 개막 5경기에서 3승2패를 기록 중인데, 최하위에 그쳤던 지난 시즌과 달리 고비를 넘기는 힘이 생겼다. 22일 SK와의 원정경기가 대표적이다. 삼성은 18점차를 극복하고 75-72로 역전승했다. 여기에는 주희정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었다. 그는 경기 막판 결정적인 레이업 득점을 올리는 등 팀 승리의 주역으로 활약했다.

삼성엔 ‘주희정 효과’를 만끽하고 있다. 주희정은 마흔 살을 바라보는 노장이지만, 속공 전개에 있어서는 여전히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속공에 능한 외국인선수 리카르도 라블리프의 활용도를 높이 데도 안성맞춤이다.

앞으로 삼성이 풀어야 할 숙제는 주희정의 체력관리와 상대팀의 견제다. 개막 5경기 만에 삼성은 주희정이 쉴 때와 벤치에 있을 때 경기력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드러냈다. 삼성과 만나는 팀들은 강한 압박수비를 통해 주희정을 봉쇄하는 전략을 들고 나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A구단 스카우트는 “삼성이 가장 무서운 것이 속공인데, 주희정이 없으면 속공이 거의 안 나온다. 주희정에게 젊은 가드 1명을 붙여놓고 체력을 떨어트리면 후반에 분명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 이상민 감독은 “집전 때는 (주희정)이 있어야 한다. 본인은 체력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조절이 필요하다. 출전시간을 잘 조절해줘야 집전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상대팀의 견제는 예상하고 있다. 이호현(23), 박재현(24)과 같은 젊은 선수들이 더 분발해줘야 최정희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대한체육회, 황희정승 유적지 반구정서 청렴교육

대한체육회는 23일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황희정승 유적지 반구정에서 사무총장, 선수총장 등 간부 직원 33명이 참가한 가운데 현장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유적지 탐방교육은 정부의 2015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중점추진 과제 중 하나인 ‘공직자 의식개혁 및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체육계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나정웅·정영원, 한국실업테니스 회장대회 우승

나정웅(고양시청)과 정영원(NH농협은행)이 2015 한국실업테니스연맹전 회장대회 남녀부 정상에 올랐다. 나정웅은 22일 강원도 영월 스포츠파크 테니스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단식 결승에서 최재원(경산시청)을 2-1(6-2 3-6 6-1)로 꺾었다. 지난해 NH농협은행에 입단한 정영원은 실업무대 첫 우승을 신고했다.

편진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박성현 “이름 석자 알렸으니 이젠 3승 도전”

시즌 2승으로 팬들 관심 돌려놓기 성공 갤러리로 갔던 하나은행챔피언십 출전 뿌듯

“박성현이라는 선수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싶다.”

지난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정규투어에 처음 올라 온 박성현(22·넵스)의 꿈은 소박했다. 함께 프로가 된 1995년생 동갑내기 백규정, 고진영, 김민선에게 솔린 팬들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돌려놓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1년 만에 그의 소박했던 꿈은 이뤄졌다. 적어도 국내에서 ‘박성현’이라는 이름 석자를 모르면 골프팬이라고 말할 수 없다.

●우승하는 법을 알아가는 단계

“첫 우승 때 워낙 힘을 많이 빼서 그렇지 이번에는 편했다.”

20일 강원도 춘천의 엘리시안 강촌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DB대우증권클래식 최종 3라운드. 공동선두로 경기를 시작한 박성현은 전반 9홀 동안 탄탄한 경기를 펼쳤다. 버디는 터지지 않았고 오히려 9번홀(파4)에서 보기를 적어내며 뒷걸음 쳤다. “전반에 경기가 안 풀렸다. 그런데도 급한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냥 ‘내 경기에만 집중하자’라는 마음뿐이었다.”

후반 들어 흐름을 찾았다. 주무기인 장타가 힘을 발휘하면서 파5인 11번홀에서 첫 버디를 잡아냈다. 다행히 그때까지도 선두권은 혼전이었지만, 단독선두였던 김혜윤도 멀리 달아나지는 못했다. 탄력을 받은 박성현은 단숨에 선두를 따라잡더니 어느덧 역전을 만들어냈다. 13번홀(파4)을 시작으로 15번홀(파5)까지 3홀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리더보드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분명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6월 롯데탄타타여자오픈에서는 마지막

홀에 보기를 하는 바람에 우승을 놓쳤고, 한국여자오픈 때는 앞서가다 공동선두를 허용한 뒤 연장 끝에 어렵게 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날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박성현의 모습이 아니었다. 여유도 있었고 선두로 나서자 더욱 강해졌다. 조금씩 우승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듯 했다. 박성현은 “14번홀에서 리더보드를 뺐는데 선두와 2타 차였다. 그런데도 전혀 압박감도 없었고 긴장되지도 않았다. 16번 홀부터 선두로 나섰을 때는 ‘우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예전과 달라진 것 같다”며 우승 순간을 돌아봤다.

●“갤러리로 갔던 하나은행챔피언십 출전 뿌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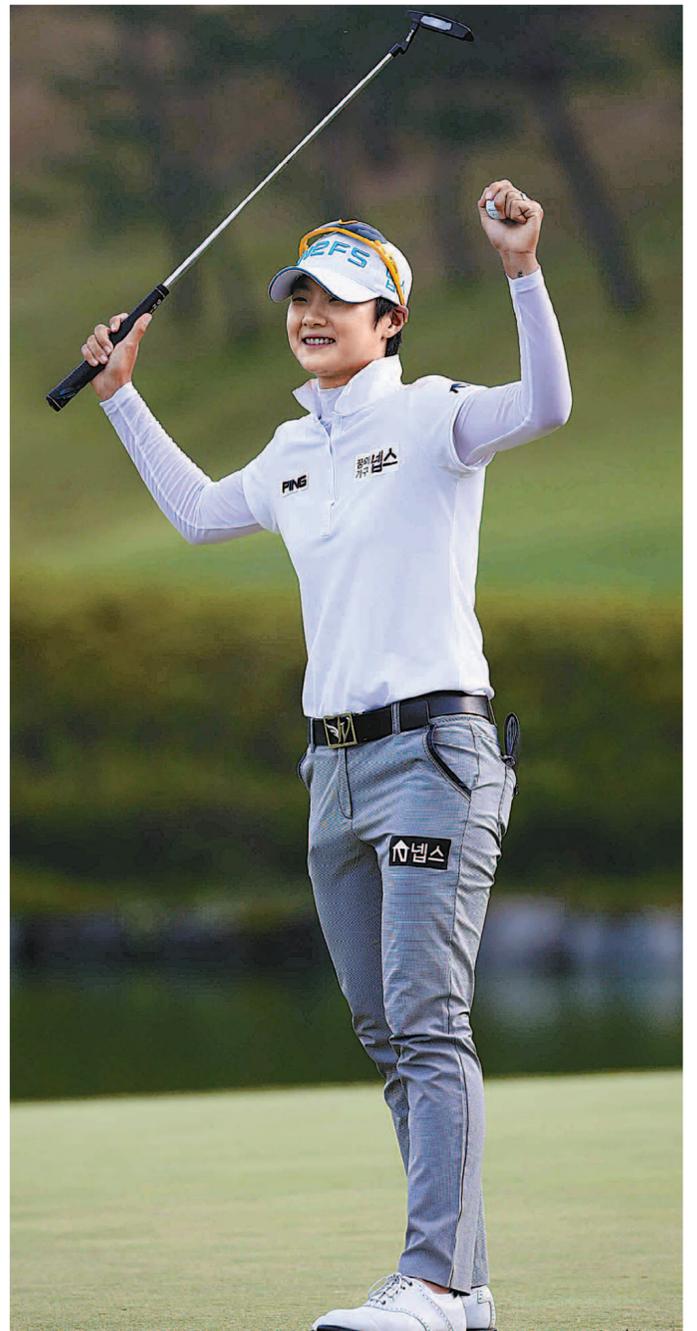
박성현에게 2015년은 100점짜리다. 그러나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아직 6경기가 더 남았고, 목표까지도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

“3승이 목표다. 2승을 했으니 이제 한번만 더 우승하면 목표를 채울 수 있다. 그러면 상금왕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박성현은 KDB대우증권클래식 우승으로 상금 5억원을 돌파했다. 상금왕까지는 아직 멀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올 시즌 우승만큼 기쁜 일이 하나 더 있다. 10월8일부터 인천 영종도 스키야드72골프장에서 열리는 LPGA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에 출전하게 됐다. 박성현은 “작년에는 그 대회에 갤러리로 갔다.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부러웠는데 올해는 내가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좋은 성적까지 낸다면 더 기쁠 것 같다. 박성현에게 경기하겠다”며 10월을 기다렸다.

국내 골프팬들에게 이름 석자는 확실하게 알렸다. KEB하나은행 챔피언십(KLPGA투어 상금랭킹에선 제외)에서 마지막 목표를 이룬다면 국내를 넘어 세계에 ‘박성현’의 이름을 알릴 수 있다. 박성현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시즌 2승으로 국내 팬들에게 이름 석자를 확실하게 알린 박성현. 다음달 KEB하나은행챔피언십을 통해 세계에도 이름을 알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KDB대우증권클래식 최종 3라운드 18번홀에서 우승을 확정짓고 환호하고 있는 박성현. 사진제공 | KLPGA

KLPGA 불비여자오픈 1,2라운드 출발시간		
선수	1라운드(출발 출)	2라운드(출발 출)
백규정 박결 김지현	오전 11시30분(1H)	오전8시10분(10H)
김혜윤 이미향 김예진	오전 11시40분(1H)	오전8시20분(10H)
김해림 김지현 김세영	오전 11시50분(1H)	오전8시30분(10H)
이정민 박성현 전인지	오후 12시10분(1H)	오전8시50분(10H)
윤채영 이미나 이시은	오전 8시(10H)	오후1시10분(1H)
김하늘 이승현 정희원	오전 8시10분(10H)	오전11시30분(1H)
이일희 지한솔 박지영	오전 8시20분(10H)	오전11시40분(1H)
최운정 안송이 장수연	오전8시30분(10H)	오전11시50분(1H)
장하나 배선우 서연정	오전 8시40분(10H)	오후12시(1H)
조윤지 고진영 김민선	오전 8시50분(10H)	오후 12시10분(1H)